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1월 5일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국, 허리케인 Sandy 로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의료서비스와 구조를 위해 연방 면제권(FEDERAL WAIVER)을 요청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국이 미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게 뉴욕 의료서비스 기관이 허리케인 Sandy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들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제 1135 조 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면제 요청서는 허리케인 Sandy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류작업, 환자 이송, 청구 요건을 포함한 일부 행정 규칙과 기록 유지 규칙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과 수 천 명의 환자들은 허리케인 Sandy 로 엄청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재해 복구 과정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면제권은 허리케인 Sandy 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려는 우리의 복구 활동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HHS 장관 Kathleen Sebelius 가 공공의료 응급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12년 10월 27일부터 뉴욕주에 이 응급서비스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제 1135 조 면제권은 다음을 위해서 일부 행정 규칙과 기록 유지 요건을 완화할 것입니다.

- 의료서비스 제공업체가 표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 청구 및 배상 요구를 허용하다
- 피해를 입었거나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서 보다 안전한 곳으로 환자의 이송을 돕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의 새로운 환자 수용을 막는 요건을 유보한다

-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업지역 이동을 위한 빠른 승인을 용이하게 한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